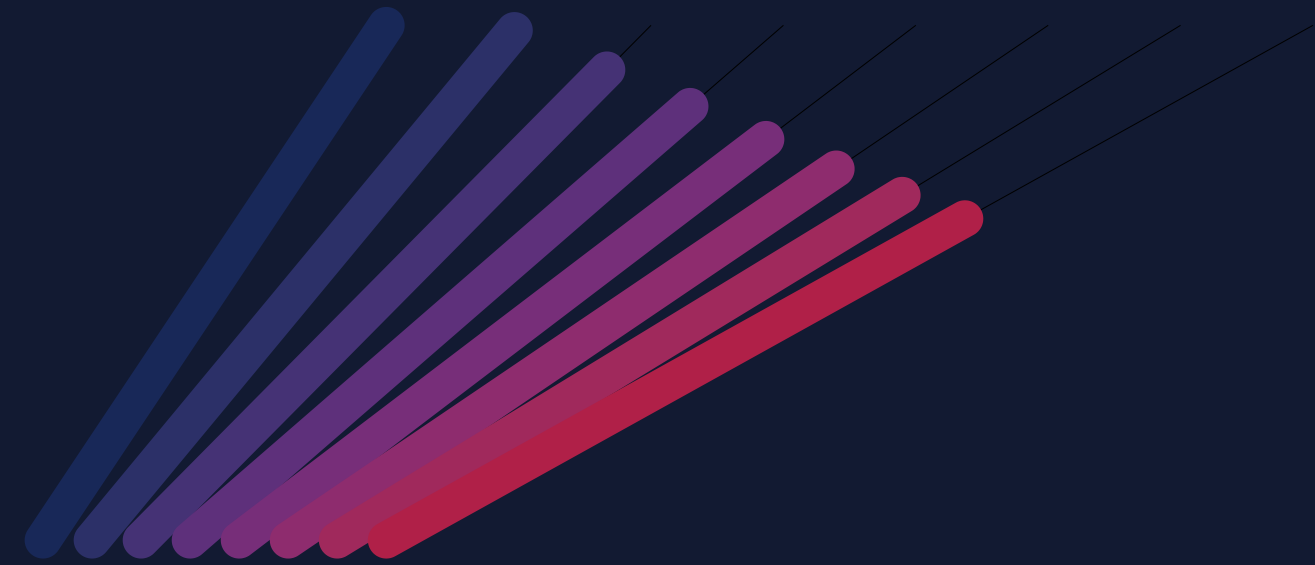




AX 디자인팩토리 부트캠프

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· 온라인 과정

지시의 다섯 조각,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이유

2강 · 지시의 다섯 조각,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이유

과목	차시	길이
생성형 AI와 디지털 리터러시	2 / 5	27분

제작  디벨로켓

도입

오늘 정하는 것

이 편이 끝나면 한 문장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 다섯 조각을 다 채운 지시로 나온 글도,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

답을 못 하면 잘 쓴 지시가 결과까지 보장한다고 믿게 됩니다.

도입

이 편이 끝나면 보는 것

다섯 조각을 채운 지시로 뽑은 자기소개서 원본 — 지어낸 문장을 지운 최종본 (재구성)

이 편 시연 설계(지시 다섯 조각·넉 줄 메모 대조) — 집필자 구성 · 확인일 2026-09-05

지난 시간 → 오늘

지난 시간

답을 대조했다

- 같은 질문을 여러 번 → 답이 갈리는 자리 발견
- 완전히 맞은 답도, 틀린 답도 있었다

오늘

지시를 쓴다

- 답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간다
- 이 과목 내내 검수할 대상 — 자기소개서

지시의 다섯 조각

이론

6분

소재 없이 — 무엇이 빠지면 AI가 대신 채우는가

지시는 다섯 조각으로 나뉜다. 누구로서 · 어떤 상황에서 · 무 엇을 · 어떤 형식으로 · 무엇은 하지 말고

하나라도 비면 그 자리는 AI가 스스로 채웁니다.

이론 · 다른 예

“보고서 요약해 줘”에 없는 것

빠진 조각

이 지시엔 조각이 빠져 있다

- 누구에게 보여줄 요약인가
- 몇 줄로 줄일 것인가
-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 것인가

다시 쓰면

조각을 채운 지시

- "팀원에게 공유할 세 줄 요약을"
- "결론과 다음 할 일 위주로"

지시가 못 하는 것

- 1 다섯 조각을 다 채워도 — 그 안의 사실 하나 하나는 보장 못 함
- 2 AI는 확률로 다음 글자를 잇는 방식으로 답을 만든다(2-1 복습)
- 3 지시를 쓰는 일과 결과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두 단계다
- 4 오늘 시연에서 잘 쓴 지시로도 확인해 본다

넉 줄 메모와 대조한다

시연

14분

잘 쓴 지시로도 지어낸 문장이 나오는지 본다

나쁜 지시 vs 다섯 조각 지시 (재구성)

넉 줄 메모 (전공·배운 것·기준·하려는 일)를 먼저 적어 둔다 → "자기소개서 써 줘"만 입력 - 누구인지 회사인지 무엇도 없는 참담한 결과 → 다섯 조각을 하나씩 채운 지시 ("가상의 식품 서비스 기획 직무", 300자, "메모에 없는 회사나 자격증을 지어내지 말 것")로 다시 생성 - 다섯 문장짜리 자기소개서 한 단락

이 편 시연 설계(넉 줄 메모·지시 두 별) - 집필자 구성 · 확인일 2026-09-05

시연 · 대조

넉 줄 메모와 다섯 문장 대조 (재구성)

문장	메모에 있음 (근거 있음)	메모에 없음 (지어냄)
첫째·다섯째(전공·배운 것·하려는 일)	2	0
둘째·셋째·넷째(동아리·프로젝트 세 건·자격증)	0	3

집필자 구성 (대조 근거: 넉 줄 메모) · 확인일 2026-09-05

모호어 함정 (재구성)

같은 지시에서 "메모에 없는 회사나 자격증을 지어내지 말 것"만 "관련 경험을 넣어 줘"로 바뀌 다시 물으면, 메모에 없는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을 스스로 지어내 채운다 - 한 줄: 서울 탐
침 "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뽑아 줘"가 동물병원까지 가져온 것과 같은 자리

집필자 구성(서울 탐침 기록) · 확인일 2026-09-05

지시가 줄이는 것과 못 줄이는 것

정리

지시는 오류를 줄입니다. 없애지는 못합니다.

다음 차시

주장을 넷으로 나눈다 — 사실·해석·예측·의견

배웠는지 재는 질문 — 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말한 적 없는 문장이 몇 개였습니까?

